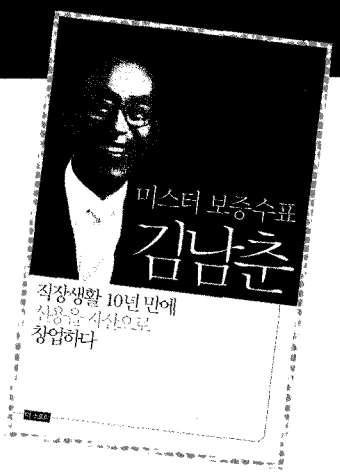


신용을 최우선 가치로

인쇄기술 선진화 1등 공신

성도GL 김남춘 회장 회고록 출판기념회

김남춘 회장과 장남이자 현재 성도GL의 대표이사인 김상래 사장

지난 40여년은 우리나라 인쇄역사에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에 현대인쇄기술이 도입되고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성도GL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주 김남춘 회장. 그는 우리나라 현대인쇄의 산증인이자 인쇄기술을 선진화시킨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회고록 출판을 주저하던 그가 최근 회고록을 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 클럽&갤러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에는 김남춘 회장의 장남이자 현재 성도GL의 대표이사인 김상래 사장 등 가족들, 회사 임직원, 어렸을 적 친구들, 함께 사업을 운영했던 동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화경영을 지향하는 성도지엘의 김남춘 회장 회고록 출판기념회는 음악으로 가득 찼다. 송희송(대구 가톨릭대교수), 오주은(중앙대 강사), 김정현(성남시향 수석), 나윤주(경원대 강사), 전경원(클라무필 수석)으로 구성된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공연을 시작으로 성악 및 피아노 공연은 노윤섭(테너), 김주희(소프라노), 전주영(피아노)씨가 꽃구름 속에 등의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김남춘 회장의 회고록

<미스터 보증수표 김남춘>이라는 제목에 <직장생활 10년 만에 신용을 자산으로 창업하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김남춘 회장의 회고록은 김남춘 회장의 어제와 오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김남춘 회장은 회고록에서 신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책표지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신용이다. 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사업파트너, 고객들에게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 상대의 마음도 힘들고 나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용이 나에게 큰 재산이 되었다."

이처럼 김남춘 회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담아냈다. 어려운 말로 포장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롤로그. 신용을 자본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버지, 자서전을 한번 써 보시지요"

회장실로 건너온 아들이 넌지시 이런 권유를 했다. 가로수에 연초록 물이 오르던 2009년 봄날이었다.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남기는 일은 그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막히면 막히는 대로, 걸리면 걸리는

대로 소살거리며 흐르는 강물 같았다. 폭풍이 불고 해일이 이는 인생의 역경을 뚫고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이뤄낸 드라마틱한 인생역정도 아닌 내 삶을 글로 써서 남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지혜를 저희가 배우고 실수는 저희도 피해가려고 해요. 손주들에게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정리해 보시지요"

재차 권유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손주들에게 들려주듯 하는 거라면 괜찮겠다 싶었다.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기록이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어른으로서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싶었다. 나는 먼저 글쓰기의 원칙을 세웠다. 그것은 '솔직하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함이 있는 반면 너무 부끄러워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 있다. 나는 위대함보다는 연약함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런 나를 알기에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성실하게 노력했다. 나는 그런 내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했다. 그 이유는 나처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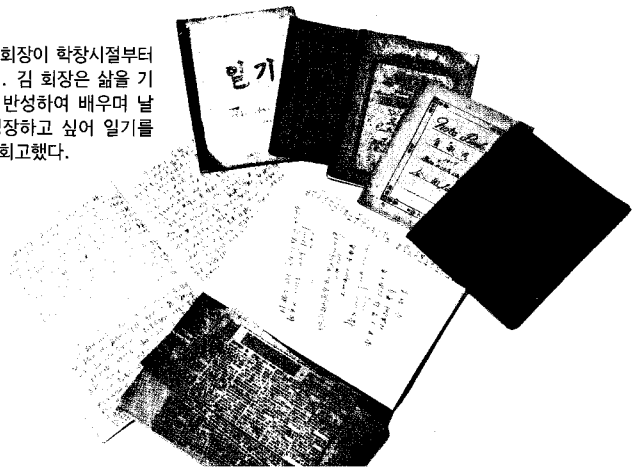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만의 원칙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것은 신용이다. 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사업파트너, 고객들에게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 상대의 마음도 힘들고, 나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렇게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용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직장생활 10년 만에 동료와 함께 우성사를 창업해 자리를 잡기까지 신용은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자본이 되어 주었다.

해방이후 전쟁까지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생존이 도덕이나 질서보다 우선되었다. 그때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신용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신용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2010년 내 나이 78세가 되었다. 20세기에 태어난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요즘 나는 하루하루가 매일 신기하고 감탄스럽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공부보다는 인력동원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내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다. 해방 이후 집 앞에서 처음 보았던 미군 지프를 보고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나와 같은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꿈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10년 지금 대한민국 브랜드 자동차, 텔레비전이 세계시장에서 세일즈 파워를 갖게 되었다. 각종 부문에서 세계 1위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국제 무역을 했던 내가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인쇄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내 전문분야였던 필름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전혀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틀이 바뀌면서 기회를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기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특히



김남춘 회장이 학창시절부터 쓴 일기. 김 회장은 삶을 기록하고 반성하여 배우며 날마다 성장하고 싶어 일기를 썼다고 회고했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았지만 그것을 발휘할만한 장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나도 대학 졸업 후에 일자리가 없어 막막했던 사람이다. 당시 최고의 직장이었던 은행 입사시험에 낙방한 나는 적성에도 맞지 않는 영업사원일을 1년 동안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필름수입업체인 '한창양행'에 입사하게 된 것이 내 삶을 바꿔 놓았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만의 원칙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것은 신용이다.

나는 1인 다역을 해야 했던 '한창양행'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심지어는 내 돈을 써가면서 직장생활을 했다.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알아본 적도 있지만 끝내 10년을 채웠다. 그 힘든 직장생활을 통해서 나는 필름 전문가가 되었다. 그 후 나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료와 함께 '우성사'를 창업했다. 그리고 6년 후 나는 인쇄필름전문가로 인정받아 후지필름과 인쇄필름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단독경영에 나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대학시절 가슴에 품었던 창업에 대한 꿈 씨앗을 현실화시켜 사원 4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를 직원 60명, 연매출 500억 원의 대한민국 그래픽 아트의 선두주자 '성도지엘'로 성장시켰다.

나는 나의 20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높은 꿈을 꾸라. 그 꿈을 위해 힘껏 달리라. 도전하라. 그러나 혹시 그 문이 당신 앞에 열리지 않았다면 돌아가도 좋다. 차선책을 선택하라.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라. 당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하라. 지금은 창업의 시대이다.

10년 동안은 한 우물을 파라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렇다. 아무리 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일을 몇 년째 반복하다 보면 고비가 오는 법이다. 지금은 한창양행사관학교에서 잘 훈련받은 덕분에 창업에 성공했다고 그때를 회상하지만, 당시에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다. 중간에 고비가 왔을 때 나도 이직을 준비해서 실행단계까지 갔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이직이 거의 확정될 무렵 아는 형님께 이직문제를 상의했다. 그 형님은 "남춘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을 했으면 10년은 한 우물을 파야하는 거야. 왜 그러겠니?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니?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지.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시작한 일을 10년은 해봐. 그러고 나서 이직을 해도 늦지 않다."

처음에 나는 무역업무가 너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형님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고비란 반드시 온다. 그것을 견디어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 3시간씩 10년을 계속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근무여건이 좋다고, 조금 더 월급이 많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 세상 모든 일이 100퍼센트 만족이란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야 한다.

그동안 내가 친구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젊은이들이 몇 명 있다. 아무리 친구사이지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취직을 시켜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어렵게 소개해 준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친구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일이 여러 번이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일이 힘들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덜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은 없다.

나는 형님의 조언덕분에 그 고비를 넘겼다. 이후 나는 형님의 말씀대로 필름 수입판매라는 한 우물을 딱 10년 동안 팠다. 그러는 동안 내가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 했던 사회 부조리도 조금씩 해결되고 질서를 잡아갔다. 그 10년 동안 내 주관적인 상황도 나를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도 변화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무슨 일이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10년 한 우물 파기를 기억하기 바란다.

정리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